

See discussions, stats, and author profiles for this publication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4909213>

On change of the terms of address between couples during the 70 years of post-colonization as reflected in mass media

Article in *Korean Semantics* · March 2016

DOI: 10.19033/sks.2016.03.51.85

CITATIONS

4

READS

219

1 author:



[Hyun Jung Koo](#)

Sangmyung University

33 PUBLICATIONS 218 CITATIONS

SEE PROFILE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구현정
(상명대학교)

<Abstract>

Hyun Jung Koo. 2016. On change of the terms of address between couples during the 70 years of post-colonization as reflected in mass media. *Korean Semantics*, 51. This study aims at tracing the change of use patterns of the terms of address between couples in the course of the past seventy years. Historical sources reveal that the terms that were used from before the liberation from colonization in 1945 are yeonggam, manwula and imja. The terms of current use other than these three emerged and were popularized in the post-colonial period, and seem to have been profoundly affected by the fast change in the family system and the societal roles of women. The bi-directional terms of address that emerged in the post-colonial period are imja, yeobo and jagi; the husband-directed terms are yeonggam, X-appa (or X-abeoji), appa and oppa; and the wife-directed terms are manwula and X-eomma, in which 'X' signifies the name of a child. An analysis of the lexicalization patterns involved in creation of terms of addres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erson trope, transposed reference, and reification. The development of address terms exhibits a tension along the two major competing forces, i.e. power and solidarity. For instanc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address terms that were based on the notion of power in the traditional society, e.g. imja,

*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부부 호칭 ‘영감’에서 ‘자기’까지”의 일부를 바탕으로 하였다.

yeonggam and manwula, all lost their currency. Also disappeared are yeobwayo, ibwayo, yeobwa, and ibwa, all blunt terms employed in calling the spouse to gain attention by directly giving an imperative of looking, i.e., bwa- 'look'. The only surviving address term of this kind is the bi-directional yeobo, the use of which signals intimacy based on the notion of close distance in the term.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al change in the family system, i.e., from the extended to the nuclear family, the terms of address that were widely used in formal settings reflecting the then-dominant extended family system, such as X-halabeji, X-halmeoni, X-eomeoni, and X-abeoji also fell into disuse. The terms that came in to fill in the gap are: jagi in an intimate relationship, a term created through person trope; X-appa and X-eomma in more formal settings; oppa, created through transposed reference; and the addressee's personal name, the use of which reflects spreading egalitarianism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핵심어: 광복 70년(Post-colonial 70 years), 남편호칭어(husband-directed terms), 아내호칭어(wife-directed terms), 공용 호칭어(bi-directional terms of address), 힘(power), 결속성(solidarity), 인칭 바꾸기(person trope), 관계 바꾸기(transposed reference), 대상화(reification)

1. 머리말

이 연구는 광복 후 방송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대본과 발행된 신문 등에 남겨진 언어 자료들을 통해 70년 동안의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 호칭어가 변화해 온 궤적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복 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로부터 광복을 맞이하였고, 전쟁과 민주화 등의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경제 구조도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은 1953년에 배해 31,000배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8,180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감소하여 핵가족으로 되었다. 대학생 수

는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대생의 비율이 1971년에는 남학생의 30%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90.6%에 이르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1963년 37.0%에서 2014년 51.1%로 증가하여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민현식(2015: 10)에서는 광복에 의한 대한민국과 한국어의 탄생은 차별적 신분제도에 기반한 봉건왕조 언어에서 만민평등 민주국가의 민주적 언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체질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민족사적 대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신분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의 변화는 총체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중심 대가족사회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이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아진 여성들의 변화가 부부 호칭에 어떻게 반영되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칭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면대면 상황에서 접촉을 시작하는(initiating contact) 수단을 나타내는 말(Braun 1988: 7)로, 호칭어의 중심적 기능은 상대를 부른 것이지만, 이와 함께 부차적으로는 강조, 한정, 주의 환기, 알림 등의 기능도 갖는다(김태엽, 2003: 19).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라는 두 개인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말이다. 이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청자가 화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지는 지위가 종속적인지, 동등한지, 우월한지를 나타내는 힘(power)의 요소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결속성(solidarity)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호칭은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개인의 신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Face Threatening Acts)가 되기 때문에, 부부 호칭어는 힘과 결속성이라는 두 차원을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을 것이다. 부부 호칭어는 가족의 특성이나 호칭어의 특성상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전승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 호칭어에 나타난 변이와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사용된 호칭어의 용례를 보기 위하여서는 구어 자료가 가장 원형적인 자료이지만,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호칭에 관해 연구된 자료들¹⁾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방송 대본 열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 등을 비롯한 대중매체 자료들을 통하여 70년 동안 나타난 호칭어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가족 호칭어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차이²⁾가 있다. 또한 방송 대본에는 역사극과 같이 방송 시기와 시대적 배경이 일치되지 않는 작품도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부 사이의 호칭어가 변화해 온 양상을 큰 틀에서 변화하는 경향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려증동(1985: 15)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서로들 사이에 ‘부름말’이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 남편과 아내 사이여서 “만약 부부 사이에 ‘부름말’이 생기면 말소리가 높아져서 어긋나게 되고, 짝뱃이라는 동급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들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고자 하는 쪽에서 듣는이 쪽으로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부부의 왕도를 지키기 위하여 옛사람들이 남편 아내 사이만은 ‘부름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어떤 이가 부부 사이에 부름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옛사람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 주장과는 달리 광복 이전 시기에도 실제로 부부 호칭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있지만, 자료를 통해 보면 광복 이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부 호칭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용한 공용 호칭어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남편호칭어와 아내호칭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물 가운데 특히 시기별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서정수(1979), 이옥련(1987), 홍민표(1999), 표준 화법 실태(2010), 구현정 외(2014)의 통계들을 활용하여,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2) 김혜숙(2005)에서는 자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부부 호칭어가 달라지는 양상을 연구하였고, 홍민표(1999)에서는 시부모 앞이나 자녀 앞과 같은 장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2. 공용 호칭어

공용 호칭어라 함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도 사용되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사용되는 호칭어를 말한다. ‘임자’, ‘여보’, ‘자기’ 등과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2.1. 임자

‘임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힘과 거리감에 의해 생성된 호칭어이다. 사전에 주인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1.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2.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서로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풀이되어 있다.

(1) 가. 삼돌 : (히죽이)뽕발엔 왜 갓었습던교?

안협 : (톡쏘며) 남 어데가고 안가고 임자가 알아 무엇할께요.

나. 칠성네 : 임자들도 서방 조심하소.... 요새 도깨비 모여드는 좋은 수풀이 있다던데.....

덕용네 : 칠성네도 조심하소.

다. 김삼보: 임자, 참 곱구먼.

안협: 몰라잉.

라. 칠성네 : 임자 오늘 웬일이요?

칠성 : 웬일은 무슨 웬일... <2014, 뽕>

위의 예(1)은 2014년 대본이지만, 1925년 12월 『개벽』에 발표한 나도향의 단편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면서 원본이 쓰인 시기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1가)는 여성이 알고 있는 남성에게 ‘임자’를 사용한 예이고, (1나)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여성들끼리 ‘임자’를 사용한 예이다. 이와는 달리 (1다)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임자’를 사용하였고, (1라)는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로 ‘임자’를 사용한 예이다. 이와 같이 두루 사용되던 것에서 점차 남편호칭어로의 기능은 사라져서, 1960년대 이후 자료부터 시작되는 방

송 대본을 통해 보면, 호칭어로 사용될 때는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내호칭어로만 사용된다.

- (2) 가. 할아버지: 임자, 뭘 봤길래 그래? <1964, 즐거운 우리집>
 나. 영규: 야, 임자... 그러구 가버리는 게 어딴냐? <1997, 그대 그리고 나>
 다. 상: 임자, 나 땡겨와. <1984, 사랑하는사람들>
 라. 자춘: 다 쓸 데가 있어 그러지. 임자, 때가 왔다 이겨야. <2010, 명가>

서정수(1979: 53)에서는 ‘임자’가 아내호칭어(3.7%), 남편호칭어(0.9%)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이후의 실태를 연구한 자료들에서는 남편호칭어로는 사용된 예가 나타나지 않고 아내호칭어로만 사용되고 있다.

표준 화법 해설(1992: 34)에서는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 ‘○○ 어머니’와 함께 ‘임자’를 아내호칭어로 인정하였으나, 표준 화법 실태(2010: 174)에서 1.4%의 비율을 보이지만 20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구현정 외(2014: 283)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없어서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초에는 공용 호칭어로 사용되던 ‘임자’가 1960년대 이후부터 아내호칭어로 전문화되었고, 현재는 중년 이후에서만 일부 사용할 뿐이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호칭어임을 알 수 있다.

2.2. 여보

‘여보’는 ‘여보시오’, ‘이봐요’, ‘저기요’ 등과 같은 호출어이다. 실체가 없이 상대방을 호출하면서 사용하는 말을 대상화(reification)하는 방식에 의해 ‘여보’가 호칭어로 쓰이게 된다. ‘여보’는 ‘이봐요’, ‘여봐요’, ‘저기요’ 등³⁾과 함께 부부 호칭어로 사용되며, 현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부 호칭어이다. ‘여보’는 공간적으로 근칭의 거리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여보세요’, ‘이봐요’, ‘여봐요’ 하고 부르던 말이어서 가까운 거리, 곧 친밀한 거리라는 것이

3) 왕한석 외(2005: 18), 손춘섭(2010: 97)등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호출어라고 하여 호칭어와 구분하였고, 호칭어에서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보’와 같이 호출어로 출발하여 호칭어로 정착된 말이다.

친밀성(intimacy)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부부 호칭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옥련(1987: 204)에서는 젊은 부부들은 쑥스러워서 이러한 호칭을 잘 안 쓴다⁴⁾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 예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 (3) 여자: (부끄럽게) 선생님!
 남자: 말구
 여자: 그럼! 미스터 김.
 남자: 아니라니까
 여자: 경식 씨!
 남자: 헛 나참. 아 우린 이제 부부 아냐? 아내가 남편을 뭐라구 부르지?
 여자: 아이
 남자: (여자흉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여자: 어머! 호호
 남자: 앞으로 여보 이외의 호칭으루 부르면 벌금 물기야. 백원씩 알았지?
 <1964, 즐거운 우리집>

이와 같이 널리 쓰이는 ‘여보’가 부부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예는 이능화(1927: 26)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夫對妻에無別稱호、니而曰女甫라호、니言其意味、卽 見此也 | 니 卽 see me也 | 라
 (이옥련 1987: 198 재인용)

(4)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는 따로 없고, ‘여보’라 하였는데, 나를 보라는 뜻이라고 하여, ‘여보’가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보’라는 말은 길가는 사람 가운데 노인이 젊은이를 부르는 호칭어로 이러한 일본 풍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병자년(1876)이 기점이 된다는 려증동(1981: 13, 이옥련 1987: 199 재인용)의 내용으로 미루어 ‘여보’는 평교간에 서로 부르는 말인데, 이것을 평교간인 부부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옥련(1987: 207)에 의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남편호칭어는 20대엔 ‘자기’, 30대엔 ‘○○아 뻔’이지만, 40대 이후에는 ‘여보’로 나타났다.

서정수(1979: 55)에서는 ‘여보’는 예사 말씨로서 비슷한 또래의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되던 말 가운데 하나이며, 1950년대 말까지는 보편적인 말이 아니었고, 문세영<국어대사전>(1954년판)에서는 평교간에 부르는 소리라 풀이되어 있고, 한글학회 <중사전>(1958년판)에는 ‘여보시오’의 좀 낮은말이라고 풀이되어 있었으나 ‘무정(이광수 1917)’이나 ‘빈처(현진건, 1920)’에는 부부 사이의 부름말로 쓰인 예가 있다고 하였다. 서정수(1983: 146)에서는 부부 사이 호칭어로 자리 잡은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추정하였는데, 매체 자료를 검색해 보면 1955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면경 보았우?”라고 묻는 만평 <1955. 8. 28. 경향, 4면>이 실렸고, 1956년에는 “부부싸움”이라는 사회만평에 부부가 서로 붙잡고 “여보, 당신이 건져야하지 않소?”라는 지문 <1956. 2. 25. 동아, 3면>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방송 대본에도 사용된 것⁵⁾으로 미루어, 1950년대 중반부터 ‘여보’라는 명칭이 두루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5) 가. 도선: 여보 인사드려. 맹아학교의 노선생이셔. <1960, 자랑스러운 아버지>
나. 남편: 여보 어디 있어? <1964, 즐거운 우리집>
다. 아내: 아니, 여보 김선생님 뵈러 가시다면서요? <1964, 즐거운 우리집>
라. 아내: 여보 넥타이 좀 풀어요. <1984, 사랑하는 사람들>

(5)에서 보는 것처럼 (5가-나)에서는 아내호칭어로 ‘여보’가 사용되었고, (5다-라)는 남편호칭어로 ‘여보’가 사용되었다. 표준 화법 해설(1992: 30)에서도 결혼한 기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여보’가 가장 기본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지만, 신혼 초 ‘여보’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 어색할 경우 ‘여보’라는 어형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여봐요’라는 어형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 (6) 가. 남편: 여봐요 여기 수진이랑 영훈이 왔어. <1987, 사랑이 꽃피는 나무>
나. 여봐요 이 개가 누구네 갠지 모릅니까? <1970, 부부만세>
다. (놀라서) 여 여봐요 악기 갖추 가야죠. <1987, 사랑이 꽃피는 나무>
라. 우선 뭘 먹어야지 여봐요 여기 주문받아요. <1987, 사랑이 꽃피는 나무>

5) 콘텐츠진흥원의 방송 대본은 1957년 자료부터 제공되는데, 1958년 <뽀오안 바람이라는 이름의 미풍>에도 최명선 노파가 남편에게 하는 독백으로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 오늘까지 모은 돈 학교 재단에 장학금으로 기증하러 갑니다.”라는 용례가 나타난다.

이 사용하지만, 부부 호칭어로 사용되는 비율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봐요’, ‘이봐요’ 등은 일반 호출어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대상에게 두루 사용되는 말이며, 표준 화법 실태(2010: 125)에서는 ‘여봐요’는 나타나지 않고, ‘이봐요’는 0.21%, ‘여보세요’는 0.05%로 나타나서 현재 부부 호칭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음을 알 수 있다.

2.3. 자기

자기는 사전에 명사로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명사로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풀이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를 2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칭 바꾸기(person trope)⁸⁾이며, 자기가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은 사용자들 간의 친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박정운·채서영, 1999: 167). 서정수(1983: 146-7)에서는 ‘자기’라는 말이 젊은 부부, 특히 애인 사이에 유행된 말로,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지만, 부부일신이라는 관계를 나타내 주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고 할 적에 부부는 상대방을 ‘자기’라 호칭할 만하다고 하여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결속성이 ‘자기’를 부부 호칭어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결속성과 친밀성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 공손 전략⁹⁾을 전제로 하는 호칭어이다.

(8) 가. 숙자: 어디 갔다와, 자기야? 손님 와 계시는데. <2000, 꼭지>

나. 고모: 자기야, 어디가? <2004, 꽃보다 아름다워>

다. 아내: 자기야, 우리가 이제 지금 애들을 진짜 잘 키우는 걸까?

<2007, 강남엄마 따라잡기>

나타났고 구현정 외(2014: 192)에서는 아내호칭어로는 37.3%, 남편호칭어로는 27.3%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인칭 바꾸기란 Agha(2007: 358)에 의하면 3인칭으로 사용되던 명사나 친족어를 2인칭이나 1인칭을 지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9) Brown and Levinson(1987: 70)에서는 호칭어의 특성상 결속성에 기초한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을 나타내거나, 힘과 거리에 기초한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자기’가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것에 관해 강신항은 ‘자기’라는 호칭은 원래 충청도에서 내외간에 쓰이고 있고, 고어에서도 ‘자기’의 높임말로 ‘자가’가 쓰인 일이 있다(『자기라는 호칭』, 1976. 2. 19. 동아, 2면>고 하였고, 이병주는 70년대 여성의 10%는 ‘하니’, 10%는 ‘유’, 5%는 이름을 부르는데, 60년대 공용어가 ‘여보’였다면, 70년대 공용어는 분명히 ‘자기’(『70년대식 여성: 남편 호칭은 ‘자기’』, 1978. 1. 14. 동아, 5면>라고 하였다. 서정수(1979: 53)에서는 아내호칭어로는 4.8%, 남편호칭어로는 10.3%를 차지하였고, 이옥련(1987: 207)에서는 아내호칭어로 7.2%, 남편호칭어로 15.6%를 차지하여서 70년대에는 ‘자기’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 30)과 표준 언어 예절(2012: 32)에서는 요즘 신혼부부들, 특히 연애결혼을 한 부부들은 서로를 ‘자기’라고 불러서 ‘자기야’는 안 되나 ‘자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으나, 역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부부 호칭어로 ‘자기’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편호칭어로서의 쓰임도 이옥련(1987: 207)에 의하면 20대 > 30대 > 40대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지만 50대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서 그 당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의 경우 ‘여보’보다도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호칭어, 즉 남편호칭어와 아내호칭어를 합한 쓰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구현정 외(2014: 189)에 의하면 ‘자기’의 사용은 신혼부부(37.0%) > 중년부부(20.0%) > 노년부부(15.0%)의 순으로 나타나서 신혼부부의 경우는 부부 호칭어로 ‘자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중년이나 노년도 사용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호칭에 대한 대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¹⁰⁾ 현재는 부부 호칭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이름

왕한석 외(2005: 머리말)에서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서 한국어 호칭어가

10) 구현정 외(2014: 283)에 의하면 ‘자기’는 호칭어에 대한 대화만족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아내 호칭어 가운데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호칭으로 나타났다.

가지는 첫 번째 특징으로 각각을 구별하는 개별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칭어로 좀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는 과거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름이 문화적으로 금기(taboo)시 되고 있어서 한국어의 호칭어 층위가 복잡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부 사이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전통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표준 언어 예절(2011: 32)에서는 ‘○○ 씨’의 ‘씨’가 영어의 미스터를 그냥 번역한 느낌이고, ‘○○ 씨’라고 하면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서정수(1979: 53)에서는 사용된 예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옥련(1987: 207)에서는 아내호칭어로 9.6%, 남편호칭어로 6.0%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뒤에 붙이는 말과 함께 조사한 홍민표(1999: 304)에 의하면 아내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6.2%, ‘-야’를 붙인 것은 16.2%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달리 남편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5.1%, ‘-야’를 붙인 것은 1.0%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실태(2010)에서도 자녀가 없을 때 아내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9.9%, ‘-야’를 붙인 것은 17.3%로 나타났으나, 남편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18.8%, ‘-야’를 붙인 것은 0.9%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을 때 아내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3.22%, ‘-야’를 붙인 것은 10.4%로 나타났으나, 남편호칭어로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것은 4.7%, ‘-야’를 붙인 것은 0%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이름을 부르더라도 아내는 ‘○○ 씨’라고 부르는 비율이 높지만, 남편은 ‘○○야’라고 부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실태(2010: 171)에 의하면 ‘○○야’를 사용하는 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20대 28.1% > 30대 32.4% > 40대 21.3% > 50대 7.2% > 60대 이상은 8.3%로 나타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0대 28.1% > 30대 20.5% > 40대 12.2% > 50대 5.2% > 60대 이상은 3.0%로 나타나서 20-40대 젊은 남성들이 ‘○○야’를 사용하며 젊고 자녀가 없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편호칭어

위에서 본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공용 호칭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남편을 부르기 위해 다른 호칭어들을 사용하여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남편호칭어에는 ‘영감’, ‘○○아빠(아버지)’ 외에도 ‘아빠’와 ‘오빠’ 등이 있다.

3.1. 영감

‘영감’은 정삼품 또는 종이품의 관원을 일컫던 말이다. 이러한 ‘영감’이 남편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인칭 바꾸기이며, 신소설에서는 ‘영감’이 남편호칭어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다.

- (9) 가. 마누라: 영감 아기 일은 엇더케 흘 작덩이오? <1907, 고목화>
 나. 령감 오늘은 엇지히서 사퇴를 그리 늦게 흐섯소 예그 오작 시장흐섯슬나 구 익 춘섬야 령감마님게서 시장흐시겟다 덤심상 어서 드러라흐는 부인은 리협관의 부인 김씨라. <1912, 현미경>
 다. 령감 제 리력은 차차 아실 것을 무엇이 그리 밋부심닛가? <1912, 현미경>
 라. 여보 령감 횡길에서 흐는 말 좀 드러 보오. <1911, 목단화>
 마. 여보 령감 우리 두 늙으니 신세가 그 안이 짝호오. <1913, 산천초목>

(9가-나)에서 쓰인 ‘영감’은 원래 관직이나 공직에 있는 남편을 부르는 말이지만, (9다)는 부부가 아닌 관직에 있는 나이가 많은 남성을 부르는 말이다. (9라-마)는 관직과 관계없이 남편호칭어로 ‘영감’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감’은 신소설 시기부터 남편호칭어로서의 쓰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0) 가. 장 총리: 영감님, 요새 어떻게 재미 많이 보십니까?
 <1960. 11. 20. 동아, 3면>
 나. 맹: 아니 영감님 책 외판원으로 취직이 되신 겁니까?
 <1964, 즐거운 우리집>

(10)에는 ‘영감’이 직책과 관계없이 나이 많은 남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감’이 남편호칭어로만 전문화된 것은 아니고, 직책과 관계없이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쓰임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가. 노파: 영감 영감 나 왔어요. 나 여기 왔어요. <1961, 감사 영감>
 나. 할머니: 여보 영감
 할아버지: 아 영감 숨 넘어가나? <1964, 즐거운 우리집>
 다. 현삼: 오빠는? 오빠가 아빠 되고 아빠가 영감된다! 설날
 <2003, 설날 특집극 순덕이>

(11)에서는 특정한 직책과 관계없이 남편호칭어로 ‘영감’을 사용한 예이다. 이와 같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된 예는 신소설 자료에서부터 발견¹¹⁾ 되며, 이러한 용법은 계속 되어서 표준 언어 예절(2011)에는 ‘영감’이 장노년층에서 남편을 부르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비율은 서정수(1979: 53)에서 1.2%로 나타났으나 이옥련(1987: 207), 홍민표(1999: 304)의 실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표준 화법 실태(2010: 130)에 의하면 1%로 50대 이상에서 사용되었고, 구현정 외(2014: 191)에서는 0.7%로 중년 부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관직명으로 출발한 ‘영감’이 20세기 초반에는 직책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칭하는 일반 호칭어와 함께 나이 많은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표준 언어 예절에도 장노년층의 남편호칭어로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젊은 층이 장난처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¹²⁾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남편호칭어임을 알 수 있다.

11) 신정숙(1974: 203)에서는 전통사회에서 남편에 대하여 ‘당신’이라 할 자리에 ‘나리, 영감, 대감 등 관직에 따른 호칭도 사용되었다 하고, 이옥련(1989: 14)에서는 조선시대 지아비에 해당하는 말로 ‘영감’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위의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의 ‘영감’이 남편호칭어로 전문화된 어휘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그러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장난스럽게 남편을 부르는 말로 ‘영감’이 다시 사용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저의 예비신랑 영감님의 생일이기도 하고 하루 싹도 풀고 왔대지요

(네이버 블로그 2015. 10. 10.)

우리 영감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농데이 복이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5. 10. 5.)

3.2. ○○아빠(아버지)

남편을 직접 부르기보다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여 간접화해서 ‘○○아빠’라고 부르거나, ‘아빠’로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Agha(2007: 358)에서 말한 것처럼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를 부르는 관계 바꾸기(transposed reference)에 의한 것인데, 그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를 부르는 종자명 호칭어(teknonymy)¹³⁾이며, 범언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 (12) 가. 흥 그랬다가 옥이 아빠 대구서 올라오면 <1961, 꽃과 낙엽이>
 나. 미숙모: 그거요 미숙아빠 모르게 맞춘거거든요. <1964, 즐거운 우리집>
 다. 재건모: 재건아빠 왜 그래? 손님들 계산대? <2004, 꽃보다 아름다워>
 라. 흥씨: 경란 아버지 어딜 가시던 길이우? <1960, 찬란한 새아침>
 마. 할머니: 옥이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1972, 즐거운 우리집>

(12가)는 ‘옥이 아빠’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한 예이고, (12나)는 자기의 남편을 지칭하면서 ‘미숙아빠’를 사용하였다. (12다)는 ‘○○아빠’를 호칭어로 사용한 예이다. 이와 같은 ‘○○아빠’가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은 서정수(1979: 53)에서는 22.1%로 나타났다. 사용 맥락을 함께 고려한 홍민표(1999: 304)에 의하면 ‘○○아빠’가 사용되는 비율이 둘이 있을 때는 22.2%이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54.0%, 자녀들 앞에서는 41.0%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종자명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거리감을 전제로 하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호칭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2라)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도 사용되는데, 홍민표(1999: 304)에서는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5%, 자녀 앞에서는 2%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실태(2010: 128)에 의하면 자녀가 있을 때 전체 9.6%가 사용하며 20대 0% < 30대 5.2% < 40

어제는 영감님의 43번째 생일이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14. 12. 1.)

13) ‘teknonymy’는 Tylor(1889: 248)에서 사용한 용어로 그리스어 τέκνον(자녀)와 ὄνομα(이름)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paedonymy로도 사용된다.

대 6.5% < 50대 9.6% < 60대 이상 17.1%로 나타나서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빈도는 높았으나, 젊은 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구현정 외(2014)에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2마)와 같이 ‘○○할아버지’는 표준 화법 해설(1992: 30-1)과 표준 언어 예절(2012: 32)에서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쓸 수도 있는 호칭어로 제시하였으나, 방송 대본에서 사용된 예가 거의 없고, 표준 화법 실태(2010)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는 남편호칭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3. 아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바꾸기이다.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 다시 말해 아내가 자신을 딸의 관점으로 옮겨서 상대를 부르는 것으로 화자 스스로가 관점을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힘의 관계에서 스스로 부모의 위치가 아닌 자녀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려는 것인데, 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지만, 유대감은 사회적 동등함과 유사성을 기초로 대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Tannen, 1993: 167)¹⁴. ‘아빠’라는 호칭이 자녀의 관점에서 ‘○○아빠’를 줄여서 ‘아빠’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부라는 동등함에서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종속적인 관계로 바꾸려는 심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3) 고: 아참 인사들 하세요 이분은 염채무씨라고요
 할일이 없으셔서 여자들만 조울줄 따라다니시는 분이구요
 이쪽은 제 아빠예요
 현: (놀라) 네?

14) 힘과 유대감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힘과 유대감, 밀접함과 거리감이라는 것이 처음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사성과 가까움은 자유와 독립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힘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Tannen, 1993: 167).

고: 아빠란말 모르세요? 제 남편

현: 아니? 아이구 실례했습니다. <1964, 즐거운 우리집>

(13)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아빠’라고 소개하고 있다. 신정숙(1974: 207)에서는 “최근년에는 자기 남편을 자기집 어른 앞에서도 아빠,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빠, 남편에게도 아빠로 통하여, 남편에 대한 2인칭으로 사용되며, 게다가 자신의 친정아버지도 아빠라고 말하므로 현대 말씨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말의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아빠아빠’하는 것은 언어의 품위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호칭도 예절 알고 부르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즘 젊은 주부들이 흔히 쓰는 ‘아빠’는 듣기 민망한 호칭으로 ‘○○아빠’ 호칭이 부담 없다<1987. 3. 17. 경향, 11면>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아빠’는 ‘○○아빠’와 같이 지칭어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호칭어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 화법 실태(2010: 127)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9%가 ‘아빠’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아빠’를 줄여서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정수(1983: 146)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빠’라는 호칭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애아빠’라고 하면 별로 나무랄 것이 못되나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빠와 혼동되기 쉽고, 또 부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호도하는 느낌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표준 화법 해설(1992: 30)에서는 아이에 기대어 ‘○○아버지’, ‘○○아빠’라고 할 수 있으나, ‘아빠’라고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남편을 부르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본식 어법이므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3.4. 오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관계 바꾸기이다.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 다시 말해 아내가 자신을 동생의 관점으로 옮겨서 상대를 부르

는 것으로 화자 스스로가 관점을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결혼하기 이전에 부르던 익숙한 호칭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의 관계에서 스스로 대등한 부부의 관계가 하나라 손아래 동생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증진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14) 가. 미숙: 오빠야말로 벌써 잊은 것 같은데... 우리 둘 결혼.

<1998, 그대 그리고 나>

나. 양팔: 오빠가 뭐냐, 오빠가? 요새 다들 오빠 오빠 하는데 가족끼리 결혼한 거냐?

명자; 어떤 집은 애 낳고도 오빠 오빠 합디다.

설칠; 마땅한 호칭이 없으니까 그렇죠. <2006, 소문난 칠공주>

다. 과자: 그리구 난 결혼한 것 들 지 신랑보고 오빠 오빠 하는 것 도 꼴사나워. 오빠가 뭐야 오빠가?

청난; (배시시) 저도 오빠라고 하는데... <2009, 수상한 삼형제>

젊은 세대가 ‘오빠’를 사용하는 현상에 관해 “젊은 부부 호칭 갈팡질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편을 ‘아빠’, ‘아저씨’, ‘형’, ‘오빠’로 부르는 경우가 지 있다<1984. 3. 21. 매일경제, 9면>고 하고, 홍민표(1999: 302)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친족명칭인 ‘오빠’로 부르는 부부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오빠’라고 부르는 현상은 1980년대부터 나타나서 점차 확산된 현상으로 보인다.

표준 화법 실태(2010: 127)에 의하면 ‘오빠’의 사용 양상은 자녀가 없는 20대가 34.8%이며, 20대 부부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어로 나타났다. 이어서 30대 17.2% > 40대 5.7% > 50대 1.8% > 60대 이상 2.8%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2.7%로 줄어든다. 구현정 외(2014: 189-190)에 의하면 사용 순위는 신혼부부 8.0% > 중년부부 2.0% > 노년부부 0%이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12.5% > 대졸 5.8% > 고졸 이하 1.3%로 나타나서 젊은 고학력층에서 더 선호되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

3.5. 남편호칭어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호칭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호칭어 변화의 양상을 그 당시의 설문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앞선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남편호칭어 사용 순위	
서정수(1979)	여보 65.5 > 아빠 22.1 > 자기 10.3 > 영감 1.2 > 임자 0.9
이옥련(1987)	여보 35.5 > 아빠 33.8 > 자기 15.6 > 이름 6.0
홍민표(1999)	자기 27.3% > 여보 27.3 > ○○아빠 22.2 > 이름 +씨 5.1
표준 화법 실태(2010)	
자녀가 없을 때	여보 38.6 > 자기 24.3 > ○○씨 18.8 > 오빠 7.3
자녀가 있을 때	여보 36.3 > ○○아빠 26.1 > 자기 12.3 > ○○아버지 9.6
구현정 외(2014)	
아내가 부르는 말	여보 27.3 > 자기 25.9 > ○○아빠 22.3 > 오빠 7.2 > 이름 5.0
남편이 듣는 말	여보 34.2 > 자기 16.8 > ○○아빠 16.8 > 오빠 9.9 > 이름 5.0

이렇게 보면 공용 호칭어이던 ‘임자’와 ‘영감’, ‘○○할아버지’, ‘○○아버지’, ‘여봐요’, ‘이봐요’ 등의 호칭어는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사라져 가고, 1960년대에 유행하여 70년대에 왕성하게 사용된 ‘여보’, 1970년대에 유행된 ‘자기’,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아빠’와 ‘○○아빠’, ‘오빠’ 등이 남편을 호칭하는 말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내호칭어

아내의 호칭에 관해 문교부(1972: 104)에서는 ‘여보!’,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은 남편이고, ‘야!’, ‘어이!’, ‘너!’, ‘○○야!’라고 부르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¹⁵⁾ 여성들은 공용 호칭어 외에도 다양한 남편호칭어를

15) 문교부(1972)에서는 “좋은 남편은?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아내를 부를 때, △ [‘야!’, ‘어이!’, ‘너!’, ‘○○야!'], ○ [‘여보!’, ‘당신!’, ‘○○[자녀] 어머니!']와 같이 세모

사용한 것에 비해, 공용 호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남성들이 사용한 아내호칭어는 ‘마누라’와 ‘○○엄마’ 정도가 있다.

4.1. 마누라

부부 사이에 부르는 말이 없었다는 러증동(1985: 15)의 견해를 수용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말로 처음 사용된 말은 ‘마누라’로 추정할 수 있다.

- (15) 가. 니던 마노라 살오쇼셔 호느 소리 밧긔 들니더라 <17세기, 계축일기>
 나. 니 디답호기를 세손이 마노라 아들인디 <19세기, 한중록.>
 다. 기간 망극지스、을 었디 만니 외에 안전 서즈、로 흥、올잇가 마누라게셔은 상
 편이 도으셔 환위를 흥、시켰건이와
 <1882, 고종 19년 흥선대원군의 언찰 던 마누라전>
 라. 박부장: 여보 마누라 우리 보퐁을 여긔저긔셔 청혼은 험디다만은
 <1907, 고목화.>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누라’는 ‘마노라’라는 어형으로 쓰여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로, 또는 ‘임금이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로 사용된 극존칭으로서 높일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5다)에서 보듯 19세기 말 언찰 자료에는 흥선대원군이 자기 부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고¹⁶⁾, (15라)와 같이 20세기 초 자료에서부터 신분과 관계없이 보통 사람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말로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 (16) 가. 마누라 미워 자가에 방화 <1928. 7. 31. 동아, 5면>
 나. 마누라 찾아주 <1939, 6. 16. 동아, 6면>
 다. 마누라 걸고 도박 ‘뉴기니아’ 토착민들 <1959, 11.4. 동아, 3면>
 라. 마누라 때리면 벌금 <1975. 1. 10. 동아, 3면>
 마. 마누라-자식만 빼고 다 바뀌라 <1997. 11. 27. 동아, 16면>

와 동그라미로 제시하였다.

16) 황문환(2007: 131)에서는 이때 ‘마누라’는 존칭 주격조사 ‘게셔’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존칭의 호칭으로 쓰인 것이라 하였다.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누라’는 지속적으로 신문의 표제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마누라’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 마누라 소릴 듣고 존경을 받았다고 느낄 여자는 없을 거다.”<나영균, 1963. 8.24. 경향, 5면>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마누라’는 ‘영감’이나 ‘대감’ 등과 같이 힘의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호칭어이지만, 극존칭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이 사용되던 말에서 아내호칭어로만 사용되면서 의미 격하(semantic derogation)가 일어나서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변화한다. 표준 화법 해설(1992: 34)에서는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여 호칭어에서 배제하였다.

- (17) 가. 상철: 여보 마누라 나와서 이거 먹어. <1987, 사랑이 꽃피는 나무>
 나. 정환: 우리 마누라 너무 이뻐서... <2002, 거침없는 사랑>
 다. 석호: 아이고, 그게 걱정이야? 우리 마누라? <2008, 가문의 영광>

그러나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누라’는 비단 낮춤의 뜻만이 아니라 친근하고 편안하게 아내를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마누라’는 표준 화법 실태(2010: 171-4)에서는 2.3%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현정 외(2014: 192)에서는 1.2% 정도 사용하지만 모두 중년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세기 초부터 아내 호칭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마누라’는 현재는 중년 이후에서만 일부 사용할 뿐이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2. ○○엄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직접 부르기보다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여 간접화해서 ‘○○엄마’라는 종자명 호칭어를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를 부르는 관계 바꾸기에 의한 것인데, 아내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거리감을 전제로 하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호칭어이다.

(18) 가. 왜 그래? 중현 엄마. <1970, 부부만세>

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보 수철이 어머니 나 원참.

<1984, 사랑하는 사람들>

(18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엄마’, (18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머니’가 호칭어로 사용되는데, 서정수(1979)에서는 6.6%가 ‘애엄마’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홍민표(1999: 304)에서는 ‘○○엄마’를 사용하는 것이 부부가 둘만 있을 때는 7.8%로 나타났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38.5%, 자녀 앞에서는 28.2%로 나타나서,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현정 외(2014: 188)에 의하면 배우자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35%로 나타났는데, 사용빈도가 신혼부부(4%) < 중년부부(6%) < 노년부부(9%)의 순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엄마’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나)와 같이 ‘엄마’를 높여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표준 화법 해설(1992: 34)에서는 자녀가 장성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표준 언어 예절(2011: 32)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엄마’만 두고 ‘○○어머니’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주에 기대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실태 자료나 방송 대본 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호칭어로 보인다.

4.3. 아내호칭어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호칭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호칭어 변화의 양상을 그 당시의 설문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앞선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내호칭어 사용 순위	
서정수(1979)	여보 83.2 > 애엄마 6.6% > 자기 4.8% > 임자 3.7% > 마누라 1.7%
이옥련(1987)	여보 46.3 > ○○엄마 29.5 > 이름 9.6 > 자기 7.2
홍민표(1999)	여보 27.7 > ○○야 16.2 > 자기 13.9 > 자녀이름 8.5 > ○○엄마 7.8
표준화법실태(2010)	
자녀가 없을 때	여보 39.8 > 자기 21.6 > ○○야 17.3 > ○○씨 9.9
자녀가 있을 때	여보 37.3 > ○○엄마 28.2 > 자기 10.8 > ○○야 10.4 > ○○ 씨 3.2
구현정 외(2014)	
남편이 부르는 말	여보 37.3 > 자기 18.0 > ○○엄마 15.5 > 이름 11.2
아내가 듣는 말	자기 29.5 > 여보 28.1 > ○○엄마 13.7 > 이름 7.9 > 애칭 별명 5.8

서정수(1979: 53)에서는 아내호칭어 사용 비율이 ‘여보’ > ‘애엄마’ > ‘자기’ > ‘임자’ > ‘마누라’로 나타났으나, 구현정 외(2014: 189)에서 실제로 아내가 듣는 말은 ‘자기’ > ‘여보’ > ‘○○엄마’ > 이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자’, ‘마누라’, ‘○○어머니’, ‘○○할머니’, ‘여봐요’, ‘이봐’ 등의 호칭어는 사라져가고, 1970년대에는 ‘여보’, 1980년대에는 ‘○○엄마’ 1990년대 이후에는 ‘자기’가 아내호칭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여보’이고, 여성들이 ‘아빠’나 ‘오빠’와 같은 관계 바꾸기에 의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남성들은 ‘엄마’나 ‘누나’와 같은 호칭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름 뒤에는 ‘-씨’보다 ‘-야’를 사용하여 낮추어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광복 후 70년 동안의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 호칭어가 변화해 온 궤적을 추적해 보았다. 광복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부 호칭어로는 ‘영감’, ‘마누라’ ‘임자’ 등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호칭어들은 광복 후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광복 후 사회적 변화는 가족 제도와 여성의 역할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호칭어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용한 공용 호칭어로는 ‘임자’, ‘여보’, ‘자기’

와 이름이 사용되었고, 남편호칭어에는 ‘영감’, ‘○○아빠(아버지)’, ‘아빠’, ‘오빠’가 사용되었으며, 아내호칭어로는 ‘마누라’와 ‘○○엄마’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부 호칭어를 생성한 기제를 종합하면 인칭 바꾸기와, 관계 바꾸기, 대상화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칭 바꾸기는 ‘영감’, ‘마누라’, ‘대감’, ‘양반’ ‘임자’ ‘자기¹⁷⁾’ 등과 같이 관직과 관련된 일반 호칭이나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던 것을 2인칭으로 전환하여 부부 호칭어로 사용한 것이고, 관계 바꾸기는 남편을 여형제의 관점에서 ‘오빠’라고 부르거나, 딸의 관점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화자 스스로가 관점을 이동하는 방식과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자녀를 통해 간접화하는 ‘○○엄마/아빠’ ‘○○어머니/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 등 종자명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상화는 ‘여보’, ‘여보시오’, ‘이봐요’, ‘저기요’ 등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을 대상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부 호칭어는 힘과 결속성이라는 두 차원을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힘의 요소를 반영하는 호칭어는 광복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영감’, ‘마누라’, ‘임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영감’은 남편호칭어로 되었고, ‘마누라’는 아내호칭어로 되었으며, ‘임자’는 부부 호칭어로 사용되다가, 아내호칭어로 전문화된다. ‘영감’이나 ‘임자’가 부부 호칭어가 아닌 일반 호칭어로도 사용되는 것과 달리 ‘마누라’는 아내호칭어로만 사용되는데, 이와 함께 의미 격하가 일어나서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변화한다. 결속성의 요소를 반영하는 호칭어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가까운 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여보’와 관계 바꾸기에 의해 만들어진 ‘아빠’, ‘오빠’와 종자명 호칭어들이 있다.

광복 이후 부부호칭어는 초기에는 힘에 바탕을 둔 호칭어들이 사용되다가 점점 더 결속성을 나타내는 호칭어들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자’와 ‘영감’, ‘마누라’와 같이 전통사회의 힘을 전제로 하는 호칭어들은 점점 사라져갔다. 또한 ‘여봐요’, ‘이봐요’, ‘여보’, ‘이봐’ 등과 같이 직접적인 호출어들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여보’만이 가까운 거리가 주는 친밀감을 바탕으

17) 양영희(2006)에서는 ‘자기, 자내, 당신’을 3인칭 대명사에서 2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것이라고 하고, 3인칭일때의 흥·라체에서 2인칭의 해체로 기능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로 공용호칭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가족제도를 바탕으로 격식적 장면에서 사용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이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호칭어도 가족 제도와 호칭의 변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친밀감을 기반으로 인칭 바꾸기를 한 ‘자기’가 자리 잡게 되고, 격식적 장면에서는 ‘○○아빠’ ‘○○엄마’가 사용되며, 관계 바꾸기에 의한 ‘오빠’나 수평사회를 반영하는 이름 부르기의 방식이 현대 부부 호칭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구현정 외(2014),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 화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원(2012), 『표준 언어 예절』.
김태엽(2003), “국어 부름말의 문법”, 『우리말글』 29, pp. 107-127.
김혜숙(2005), “교사 부부의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 변화”, 왕한석 외(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pp. 245-284.
려중동(1981), “여자가 시집가서 사용해야 되는 말에 대하여”,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0.
려중동(1985), 『한국가정언어』, 시사문화사.
문교부(1972), 『생활예절』.
민현식(2015), “광복 70돌맞이 말글 정책의 회고와 전망”, 『61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자료집』, 한글학회, pp. 9-44.
박정운·채서영(1999), “2인칭 여성 대명사 자기의 발달과 사용”, 『사회언어학』 7-1, pp. 151-178.
서정수(1979),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I)-부름말과 가리킴말-”, 『한글』 165, pp. 31-69.
서정수(1983), “가정에서의 부름말과 가리킴말”, 『정신문화연구』 1983. 4, pp. 142-148.
손춘섭(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33, pp. 95-129.
신정숙(1974), “한국 전통사회 부녀의 호칭어와 존비어”, 『국어국문학』 65·66, pp. 199-213.
안태숙 외(2010),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양영희(2006),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중세의 3인칭에서 현대의 2인칭 화로”, 『우리말글』 38, pp. 59-83.

- 왕한석 외(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 이능화(1927, 昭和二年), 『朝鮮女俗考』, 翰林書林, 民俗苑 影印本(1985).
- 이무영 엮음(1994),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여강.
- 이옥련(1987), 국어 부부호칭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아시아 여성연구』 26, pp. 193-21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옥련(1989), “언간의 친척 및 부부 호칭어”, 『아시아 여성연구』 28,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101-121.
- 이창덕 외(2009),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통계청(2015),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http://kosis.kr/ups/ups_01List.jsp?pubcode=AS
- 홍민표(1999), “한일 부부호칭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일본학보』 43, pp. 301-317.
- 황문환 (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규장각』 17, pp. 121-139.
- Agha, Asif(2007),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un, Friederike.(1988), *Terms of address: Problems of patterns and usage in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rown, Penelope and Levinson, Stephe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eborah.(ed.)(1993),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ylor, Edward Burnmett.(1989), On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pplied to laws of marriage and descent. *Journal of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18, pp. 245 - 269.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대본 열람 <http://www.kocca.kr/cop/bbs/list/>

구현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자 우편: hyunjikoo@smu.ac.kr

원고 접수일: 2016. 03. 06.

원고 수정일: 2016. 03. 25.

게재 확정일: 2016. 03. 28.